

생태문명 시대 견인하는 자치도정 구현

도 자치행정국, 지난 한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투명한 인사운영 통한 도정 안정화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전북도 자치행정국은 2021년도 비전을 '생태문명 시대를 견인하는 자치도정 구현'으로 정하고 지난 한해 동안 힘 없이 달렸다.

이를 위해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행보한 직장문화 조성, ▲함께하는 도정 운영으로 열린 자치행정 실현, ▲자체수입 안정적 확충으로 도정발전 기반 강화,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등 4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균형인사 실현

지난 한 해 동안 활력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건강증진 강화, 임산·육아 배려문화 정착, 신노사관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했다.

운동차량(1,040명)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230명) 확대와 특별휴가 실시, 임산·육아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출산 직원 맞춤형 복지제공 및 임산부 전용 휴게실 등을 운영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및 공무원노동조합 등 노사합의(6회), 노사간담회(12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를 구축했다.

아울러,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6.1%까지 확대하는 등 양성평등 인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인사혁신처 주관 2021년 균형인사 성과대

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전문직위(20년81개→21년41개)를 전면 개선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 공개경쟁 필기시험 시 과목별 원점수를 사전에 공개(9,438명)해 수험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고, 필기시험 점수 오류 제로화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했으며, 14개 시군에서 직접 면접시험을 시행, 지역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하는 도정운영으로 열린 자치행정 실현

도정시책 공감대 형성과 시군의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시,군의 수평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85억 원을 지원해 학생의 학력신장과 더불어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켰다.

아울러, 도내 7개 대학(41개팀)과 함께,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를 운영해 41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15건을 도정 시책에 반영했다.

▲안정적 지방세입 확충 및 납세자 권익 강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와 시,군 합동 광역장수기동반(3개반 44명)을 구성·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지역자원시설·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204억원을 세제 지원했으며, 모범납세자를 선정(128명), 마을세무사(89명)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도내 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 서비스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세출결산,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정보를 도민에게 공개(도 홈페이지)하고, 세출예산(8조 7,206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지역외무공도도급, 지역업체 참여도 배정 등을 적용해 도내 업체 우선계약을 96.4%(783억원 중 755억원)를 달성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비대상 952필지를 발굴하고, 누락재산 등록과 소유권 변경자료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중공 후 16일이 경과한 도청사 시설물에 대해 도청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 지진으로부터 안전성(별도 내진보강 필요)을 확인했고, 도청사 대

강당등 옥상바닥 전체 보수 및 승강기 정비공사를 통해 도청사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및 공공 안전 확보에도 적극 노력했다.

또한, 여직원 전용선택조성, 각종 휴게공간 내 노후된 소파 교체, 스마트 가든볼 등을 설치해 직원 복리후생과 도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를 제공했다.

유희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은 생태문명의 원년으로 전북의 방식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정환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행정 전반을 지원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다양한 소통에 어려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국장은 "2022년도에는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조직문화 조성 과 코로나19에 지치고 힘든 도민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함께,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군 및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2022년이 전북 대도약 시대로 힘껏 앞장설(발돋움)의 자세로 원활한 도정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숙 기자

귀농귀촌 지원사업 평가서 '우수'

전북도, 농식품부 주관 평가최다 수상 '쾌거' 정읍시, 종합순위 2위... 완주·무주·남원 각 6-8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평가에서 전북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평가에서 도내 4개 시,군이 종합 순위 10위 안에 선정됐다.

선정된 도내 4개 시,군 중 정읍시가 종합순위 2위로 우수상을 받았고, 완주군이 6위, 무주군이 7위, 남원시가 8위로 장려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정읍시는 장관표창과 포상금 200만 원, 장려상에는 완주군과 무주군은 포상금 100만 원, 남원시는 포상금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특히, 우수상을 수상한 정읍시는 유튜브 마케팅, 비대면 쇼핑 시스템 운영, 지역리더 간담회, 마을별 환영회 등 지역민과의 융화 사업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마을단위 융화교육 사업이 21년도에는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개편·통합해 운영했고, 농식품부의 사업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도는 농식품부에서 추진기금 운영비 50% 이내, 하드웨어 조성 30% 이내, 소프트웨어 운영 40% 이상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자율사업을 포함해 사업비 3,060백만 원, 26개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도 사업비는 지난 11월 농식품부 공모에 올해 대비 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3억9,200만 원을 확보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가 농식품부 귀농귀촌 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며 "내년도에도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도내 농촌지역 13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시민의 농촌 유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숙 기자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내년 업무계획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2022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

공공기관 채용계획·합동채용설명회 등 인재육성사업 논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곳·도내 대학 6곳으로 구성된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온라인 회의)'가 27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로 개최됐으며, 기관의 채용인원·진형 절차와 인재 채용 지원계획 등 내년도 인재 채용계획을 공유했다.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30% 비율의 채용목표제를 실시해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킬 예정이다.

한국식품연구원 등 매 단계마다 지역인재에게 3점의 가산점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응시자 취득점수의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원서 접수시부터 지역인재로 응시한 인원을 구분 모집해 30%를 의무화 채용한다.

국토교통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발표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역인재 채용

률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률을 더욱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취업촉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최되지 못했던 합동 채용설명회를 2022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개최지와 일정, 참여기관별 역할을 협의했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4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협력해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및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인 오픈캠퍼스의 학사행정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과 같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공유, 이진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 등 대학의 공공기관 사업 제안도 이뤄졌다.

/유희숙 기자

안심식당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전북도, 전국 지자체 대상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인정 안심식당 1508개소 지정·관리... 안전한 식문화 개선 '앞장'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2021년도 하반기 '안심식당' 운영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의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했다.

도는 안심식당 운영 및 사후관리, 홍보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안전한 식문화개선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으로 인정받았다.

'안심식당'이란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를 비치한 음식점이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하는 음식점 1,508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 지정업소에 덜어먹기 실천 물품, 비말차단 칸막이, 코로나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며 안전한 식문화 개선에 적극 앞장서 왔다.

이경영 도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안심식당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외식 업계에서도 식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유희숙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군산시 공고 제2021-262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중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 제한지역
 - 위 치: 전북 군산시 서곡동, 옥산면 당포리, 옥구읍 옥정리 일원
 - 면 적: 505,932㎡
- 제한사유
 - 군산시 지역중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구분별 단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2021. 12. 27. ~ 2022. 1. 10. (14일간)
 - 공람장소: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052, Fax. 063-452-8171)
-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사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토질은 땅이놓는 행위
-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개발행위 허가제원 공고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거하여 사전결정·승인·인가 허가·신고되었거나 영수권 개발행위
 -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경각을 위한 도시형 질변경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세해마루 또는 세나무 등 용도조치로 하여 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상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원안승용, 소견부수용으로 작성된 토지의 형질변경
- 기타
 - 관제도시의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연방기간 내 서면 또는 후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군산시장